

On multilingual internet

한	Ö	語	ନି
ア	タ	@	Σ
§	Э	Ж	é
Ω	يبلو	慶	シ

Koray Kocagöncü
Şubat 2006

netp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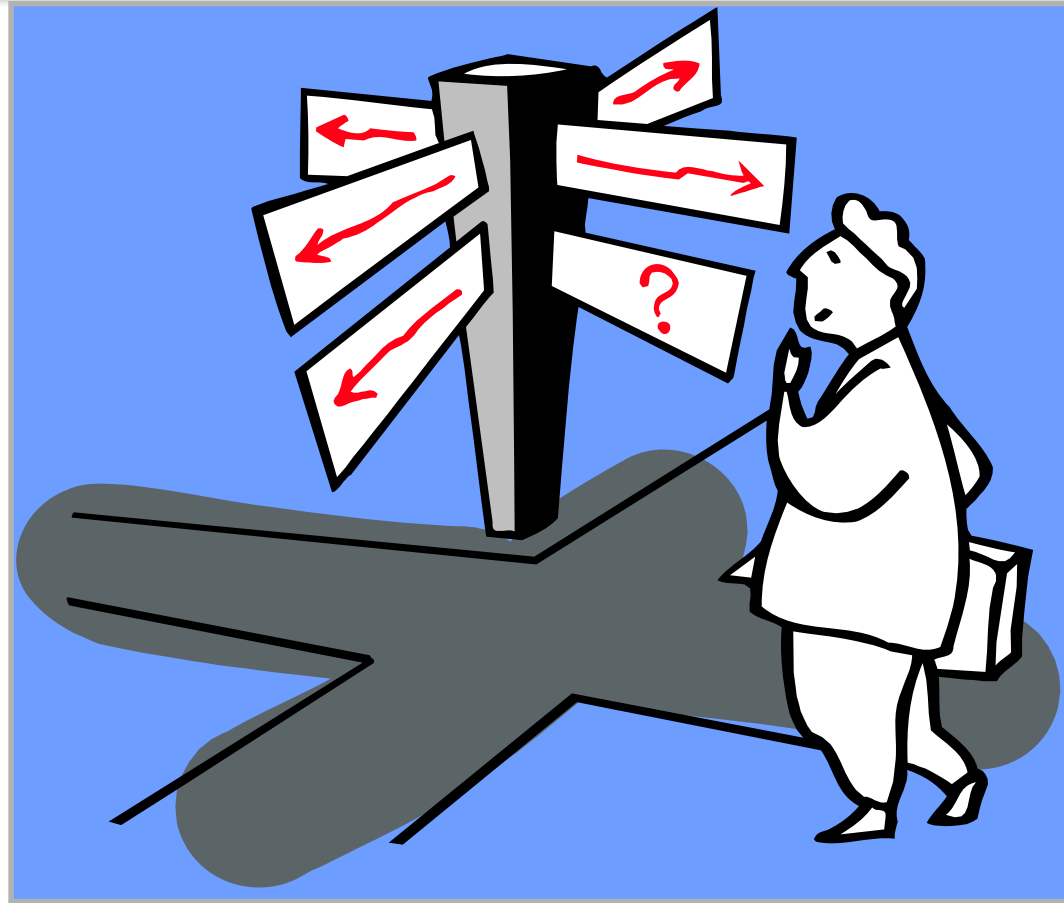
7'den 70'e, herkes için İnternet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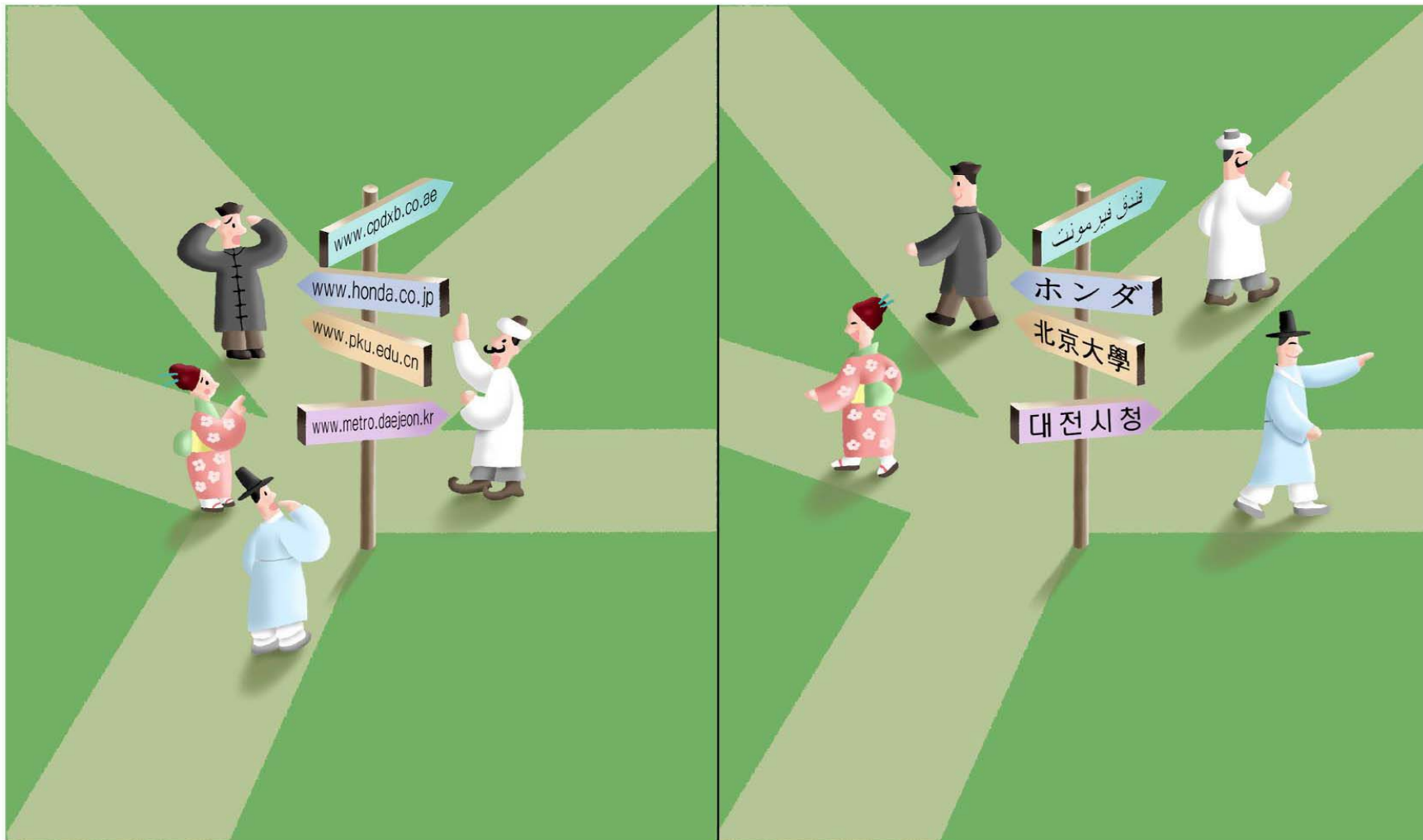
- I . Importance of Multilingualism
- II . What is Multilingual Internet Name ?
- III . Case Study of Multilingual Internet Name
- IV . Responses from World

Multilingual
Internet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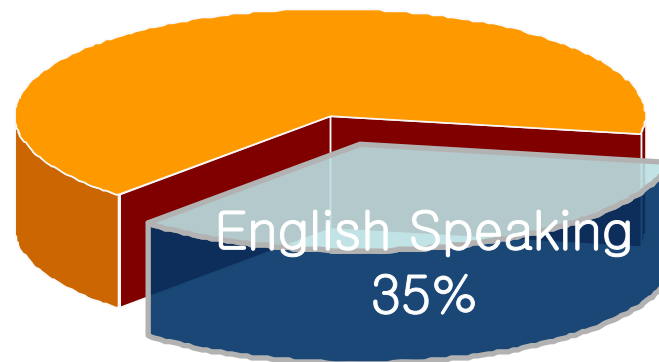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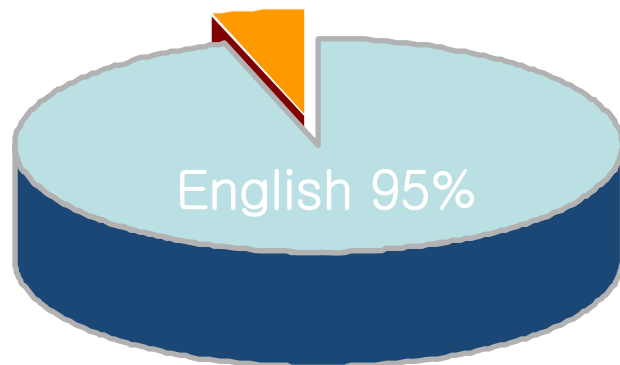
1
Importance of
Multilingualism



Which is the sign for my destination ??



What about e-Commerce?



- Korean Corporations are using Local Language Internet Address & e-Mail Address on their name cards.
- Korean Samsung web site (삼성) has increased traffics by 3~4 times than before (www.samsung.co.kr). Many corporations feels that Korean Internet Address for Local people and English Domain Name for foreigners is the most efficient ways to create Internet traffics.

- **Dream of Multilingual Internet**

To develop and construct the enabling environment in which anybody who needs the Internet can use it freely without the language barrier irrespective of their languages .

- **Realty**

- We have seen the phenomenal growth of the Internet, but mostly in one particular language
- This deepened the economic gap and denied the local people their own valuable culture.

- **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ultilingualism in its DoP and AP.

“It should ensur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facilitate access for all and ensure a stable and secure functioning of the Internet, taking into account multilingualism.”

- **WTSA 2004**
adopted the resolution on IDN

” RESOLUTION 48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Florianópolis, 2004) “

Multilingual
İnternet Name

||

Multilingual İnternet
Name

- **Multilingual Internet Names**

“Internet resource identifier in local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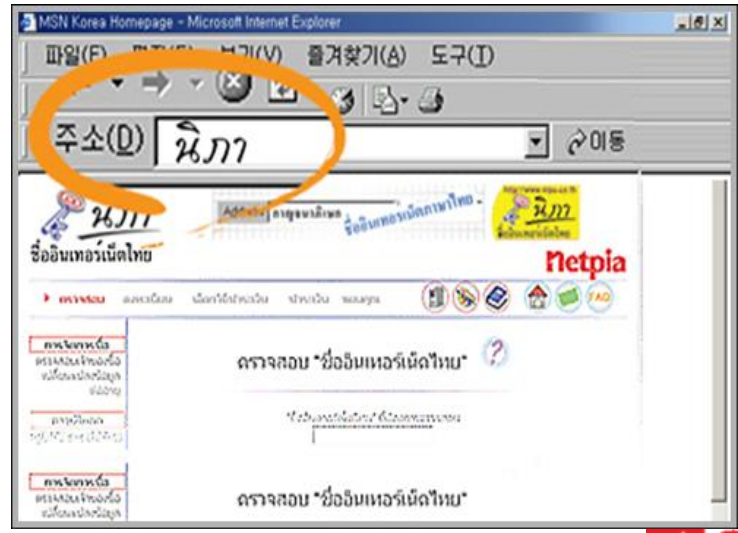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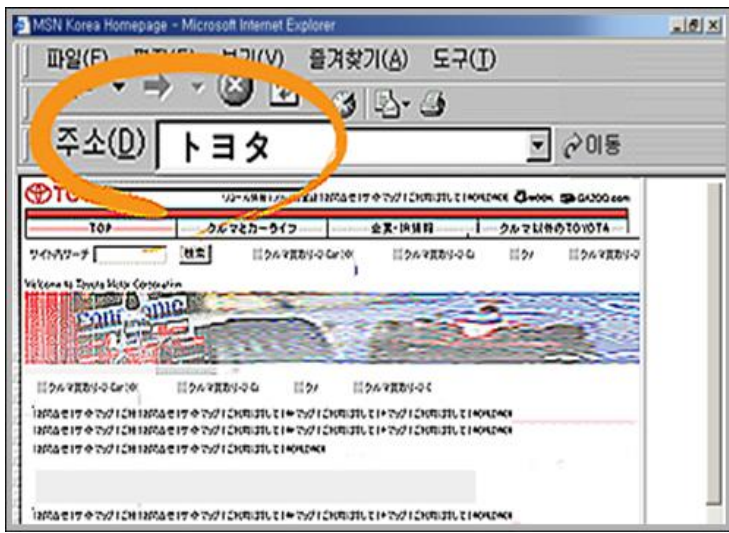
- 1) **IDN (International Domain Name)**

Examples) <http://IDN.kr> or <http://IDN.jp>

- 2) **Native Language Internet Address**

Example) <http://name>

Examples of NLIA



- **Strength of IDN**
 - 1) **Standard exists**
 - 2) **already globally unique**
 - 3) **strong public awar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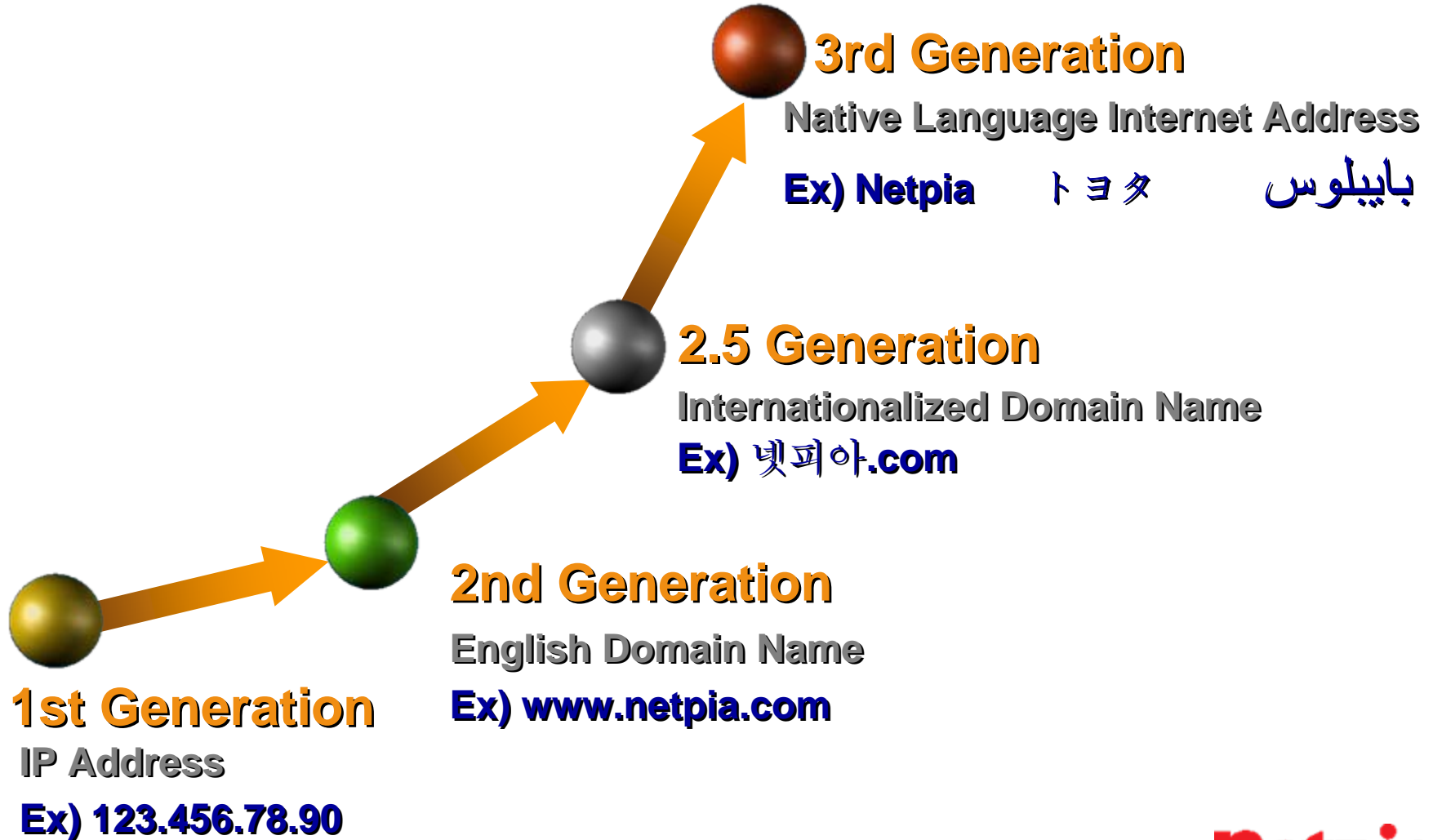
- **Weakness of IDN**
 - 1) **not complete multilingualization**
 - 2) **Look is not natural**
 - 3) **Each user has to install software**

- **Strength of NLIA**
 - 1) **Natural look**
 - 2) **Easiest to remember**
 - 3) **Easy to be integrated with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 **Weakness of NLIA**
 - 1) **So far, no technology standard**
 - 2) **Low public awareness**
 - 3) **no formalized space for discussion**

- **Principal Considerations in developing standard for Multilingual Internet Name**
 - 1) Should provide the best possible convenience**
 - 2) may guarantee the Global Uniqueness**
 - 3) Should respect the Cultural Aspect**
 - 4) Should allow equal and full participation of each stakeholder in managing the naming space**

Netpia's view of user Convenience



- IDN is better positioned in this aspect, because Multilingual have not provided such a uniqueness so far.
- NLIA may needs to devise something for country identification.

for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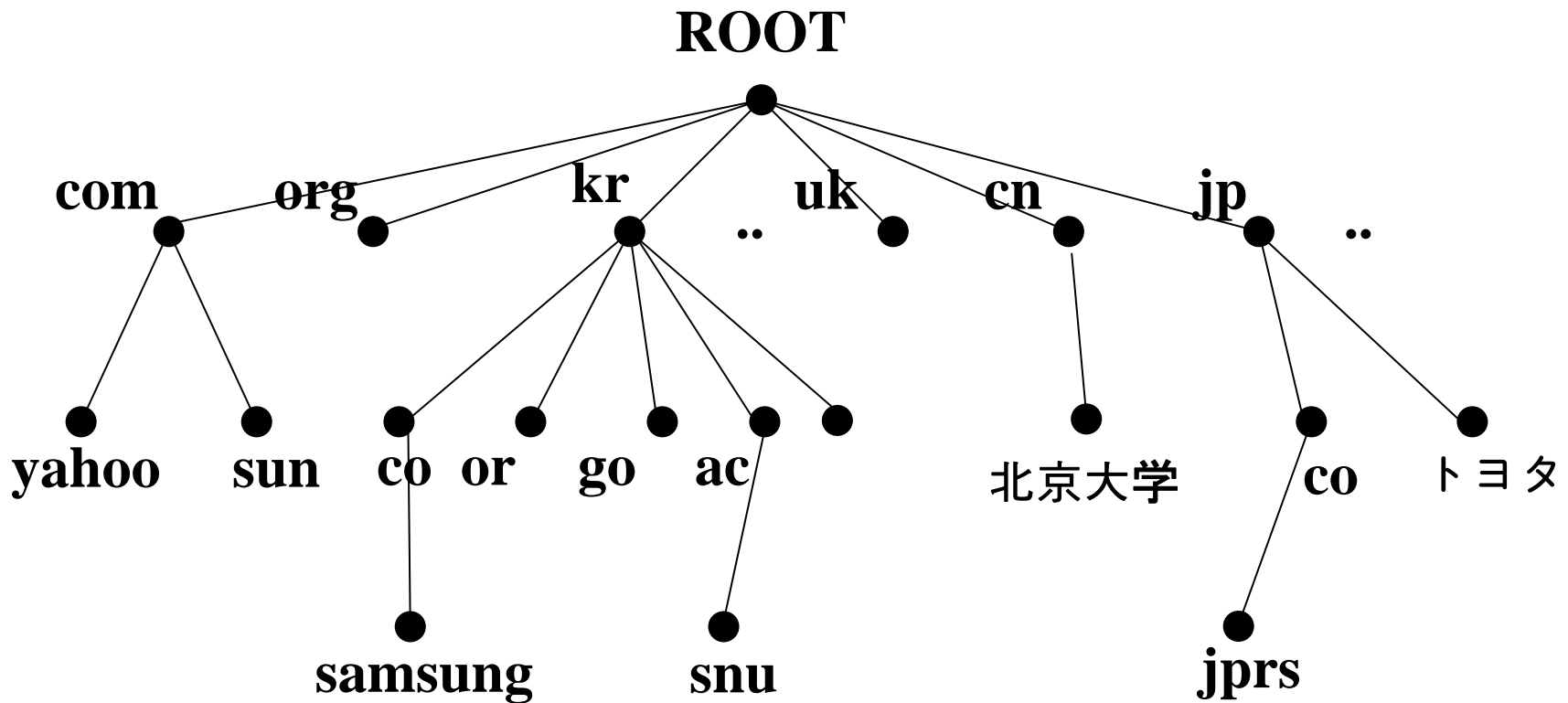
ex 1) 한국/정보통신부

ex 2) 日本/トヨタ

(※ cnn.com/Jacksontrial)

- Users are better served with multilingual keyword in this assessment, because it is the real life name itself without any form of modification.
- IDN looks a little bit strange to the local people
 - ex 1) 서울시청.com VS 서울시청
 - ex 2) 北京大学.cn VS 北京大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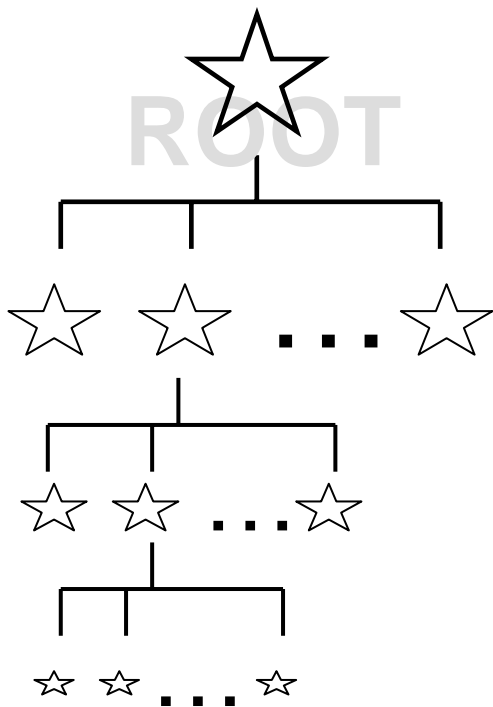
Annual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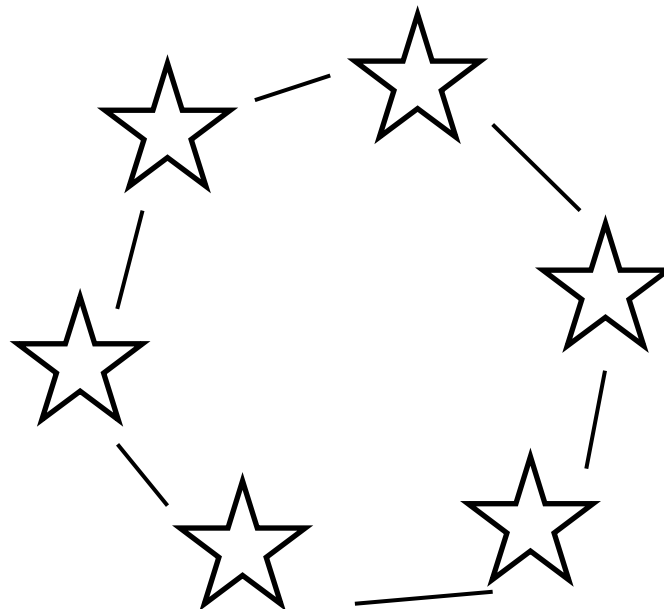
In this hierarchical structure, the top down name resolution process could endow the dominant power to the root manager.

Structures we have seen ...

Domain Nam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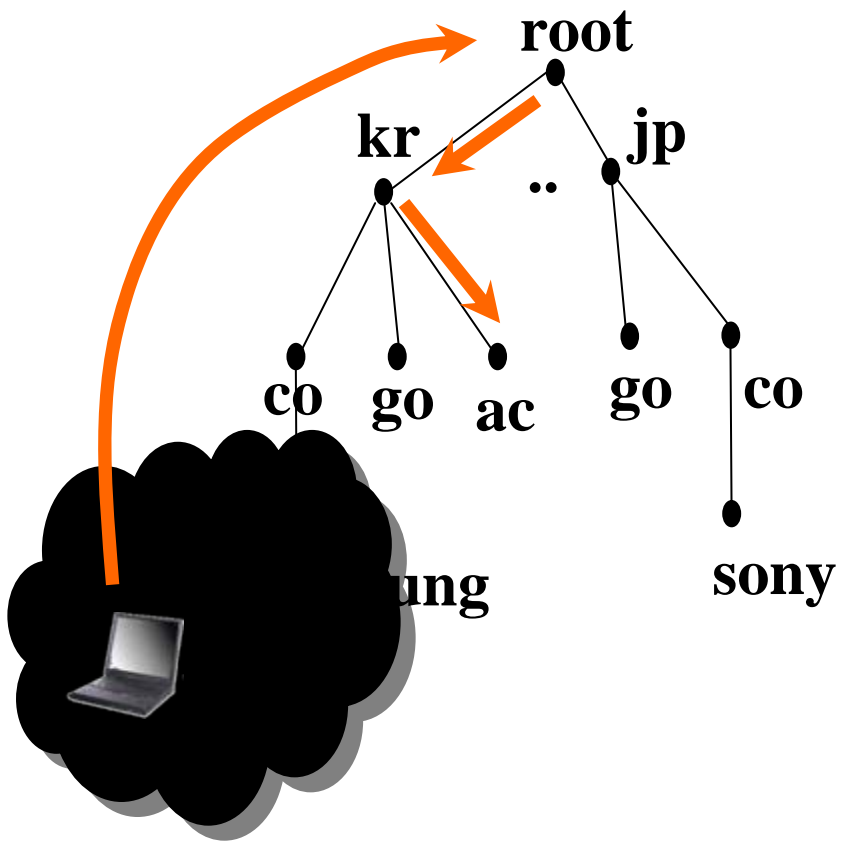


Telephone Networks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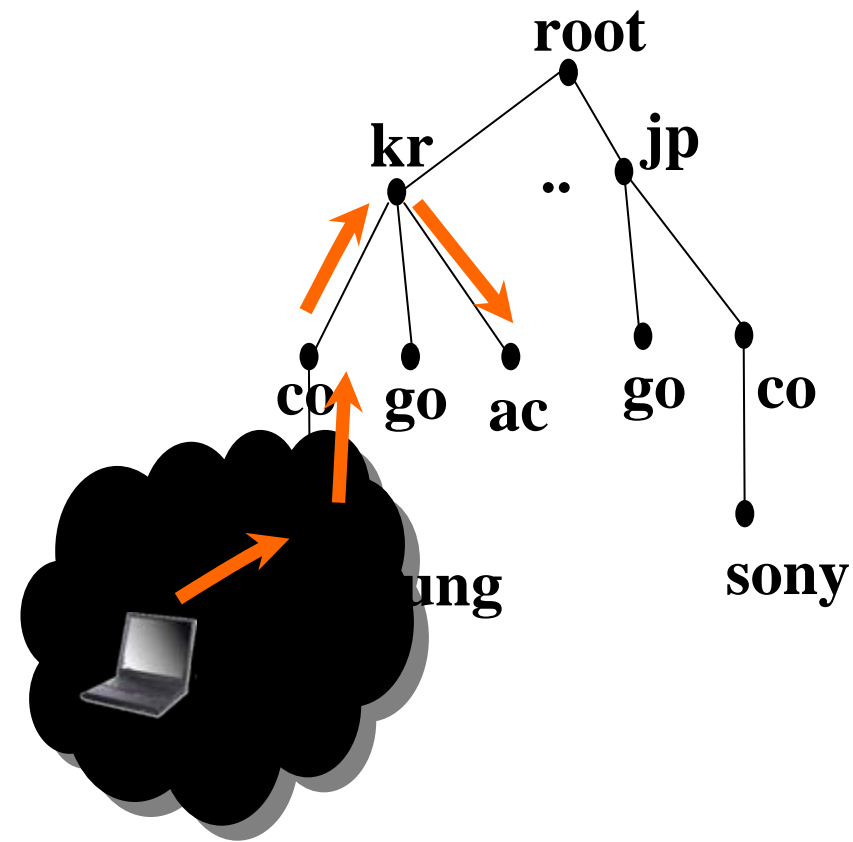


We do have choices ...

Top down resolution vs Bottom up resolution



<domain name resolution process>



<The above is just for explanation, bu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

Why bottom up resolution ?

- 1. appears to better respect the sovereignty**
- 2. better for Localization of Possible Failure**
- 3. Structure is a policy matter rather than a technology matter.**
 - Peer-to-peer structure is not what is impossible.**
 - We all have seen it in LEGACY telephone networks.**
- 4. 'Bottom up' is the very basic spirit of the Internet**
- 5. better for user convenience**

Why convenient with bottom up?

- **It could lead to possibly less typing.**
 - local multilingual keyword for local destination
 - global multilingual keyword for international destination.
- **Conventional bottom up resolution address is telephone number.**
 - ex) +90 – 212 – 631 – 3345
 - can dial extension number (3345) only for the call within the company.
 - The longest dialing with country code is only necessary for international call.

Multilingual
Internet Name

II

Case Study of NLIA
in Korea

3000억 들인 안방민원·온라인행정·NEIS...

5/26 2008 102

전자정부 반년째 '개점휴업'

인터넷 민원 신청만 되고 발급 안돼 무인발급기 지문 못읽어 '에러' 속출 11대 서비스 중 조달 분야만 제구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청 민원실. 무인 민원발급기(키오스크)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던 지모(29·여)씨가 직원들에게 짜증들었다. "민원인들이 사용법이 어렵다며 잘 이용하지 않아 기능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키오스크는 정부가 민원인 혼자서 민원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청·백화점 등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한 전자정부 서비스용 단말기다.

서울 역삼1동 사무소에 있는 키오스크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기능이 아예 차단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사용법이 어렵다며 잘 이용하지 않아 기능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 3천억원을 들여 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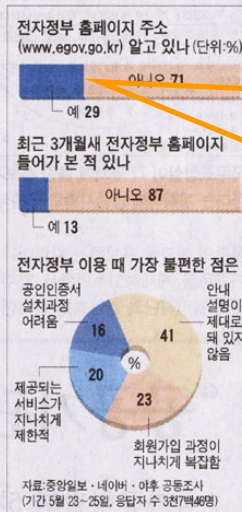
관계 시리즈 18면

를 구축한 뒤 지난해 11월 서비스에 들어간 전자정부의 많은 기능이 상당부분 개점 휴업 상태다.

당시 정부는 통합 민원 서비스·전자 조달 서비스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완료하고 "클릭 한번으로 국민과 기업들에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까다로운 이용 절차 ▶부처 이기주의 ▶법령 미비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등 여러 문제로 서비스 6개월 만에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전자 조달 서비스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는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15만5천건이던 접속 건수는 지난 4월 하루 5만3천건에 그쳤다. 민원 신청 건수도 초기는 하루 평균 1천1백여건이었으나 4



월엔 9백50여건으로 줄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3백만건)의 0.095%에 불과하다.

중앙일보가 NHN·야후코리아 등 포털 업체와 공동으로 네티즌 3천7백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전자정부 사이

트를 이용해 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였다.

민원인이 많이 찾는 서비스는 부처 이기주의, 정부 간 협력 부족으로 이용하기조차 힘들다. 1년에 9백만 건쯤 되는 전입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에서 위급한 입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좌절했다.

법령 미비도 문제다. 온라인 민원은 신청과 열람만 가능하고, 공인 발급이 안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해당 서류를 받으려 하면 접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서류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은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현재 전교조의 반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전산원 서삼영 원장은 "전자 정부는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도기적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체제 정비·운영 조직의 전문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hjyun@joongang.co.kr

17대 총선은 사이버정치로 통했다

정치와 한글인터넷주소

"그냥 노무현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는 선거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했다. 넓게 해석하자면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꾼 획기적인 한마디였다. 또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인터넷 참여정치를 이끄는 단초가 됐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선거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글인터넷주소의 위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불기 시작한 한글인터넷주소 열풍은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17대 총선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진보정당은 후보이고 보수정당은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지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고 말해 노 대통령 선거캠프를 만들었다.

열린우리당 역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이 활발했다. 총 후보자 245명 중 232명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했다. 전략적으로 후보자 이름 위에 지우기와 관공관 한글인터넷주소 등 뒤에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두터운 열린우리당에서는 '젊은 희망'과 '꼭고부남' '내란'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으로 붙여넣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으로 첫 번째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 경우 총 125명의 국회의원 중 74명이 개별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했다. 민노당은 개별적인 등



합동연설회 없애져 인터넷이 홍보 창구 여야 후보 등 695명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정보소외계층 쉽게 접속 참여정치 건인

사이버정치의 맥이 될 17대 총선은 유감없이 보여줬다.

특히 '온 인도는 선거'를 표방했고 선거법 위반에 중형을 가한 이번 총선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총선과 앞두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17대 총선에서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와 달리 선거가 치러질 즈음엔 후보자가 몇 '몇'이라는 '선거 반대'와 공약 등을 지어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50% 이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에 여쭙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으로 첫 번째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 경우 총 125명의 국회의원 중 74명이 개별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난번 대선에서 양어 된 인터넷주소를 활용했던 때와 이번 총선은 확연히 달랐다. 이례적인 사이트 개설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선히 나서고 그 지체가 한글 인터넷주소였다.

박 대표는 "내터즌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인터넷주소 사용하고 있다"며 "주소수에 '박근혜'라고만



'말갈이' 등 인터넷 낙선운동 핫이슈

이와 '말갈이', 낙선운동' 등은 개인이 시민단체와 연대해는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시연운동을 하는 단체의 한글인터넷주소 등록 경쟁이 심했다. 뒤늦게 '말갈이'를 등록하고자 했던 말갈이 측은 "말갈이" 등록자와 협의했지만 결국 정권의 힘으로 '말갈이' 대신 '말갈어연대'를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

또 "차떼기"를 일컫는 '공정시민연대' 페이지도 어둠속에 '공정' 시민단체의 비공인 인터넷주소로 한창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후보자들은 '시민단체들이 각 당 공천비밀단 발표 이후 주소창에 관련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한글인터넷의 위용은 전선상 때문에 접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 이경우주최팀장 kwlee@ntnews.co.kr
 - 최인환기자 incho@ntnews.co.kr
 - 이진홍기자 jho@ntnews.co.kr
 - 김유정기자 yujung@ntnews.co.kr
 - 조영민기자 yemin@ntnews.co.kr
 - 홍현기기자 cheon@ntnews.co.kr

빠르고... 편하고... 쉽게... 유권자와 양방향 의사소통

한글인터넷주소의 위력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홈페이지 및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유권자들과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간의 정보 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한 메뉴를 마련하고 활성화시켰다"고 말했다.

은 데다 후보자의 홈페이지주소마저 복잡한 영문으로 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는 한글로 후보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 수 있어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의 소신과 공약을 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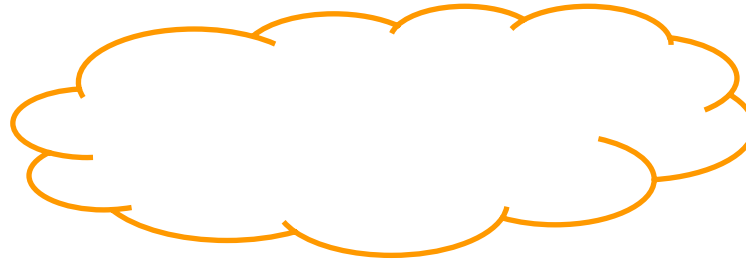
온라인 선거문화의 확립은 전자 민주주의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당시 노무현 후보는 한글인터넷주소를 통한 홍보 전략으로 정지에 무관심한 20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인터넷이 '전자민주주의'를 이끄는 견인차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유권자들이 한글을 통해 쉽게 접속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거에 대한 의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돼 참여정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유시민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의 인터넷정치 참여를 위해 "일반인들이 편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사회소외계층인 점을 볼 때, 정보통신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범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17대 총선에는 상대방 후보의 이름과 선거구 관련 주소를 선점해 인터넷 유세를 사전에 약화시키는 선거 전략이 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도 엿볼 수 있듯 앞으로 한글인터넷주소는 또 다른 선거 유세 방법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 안내에서 개표결과까지= 17대 총선에서 한글인터넷의 위력은 선거운동 과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인터넷 주소창에 지역 투표소를 한글로 입력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해당 투표소 위치정보 서비스가 제공됐다. 예를 들어 한글로 '신사동 제1투표소'를 입력하면 해당 위치 정보가 나와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 돼 쉽게 투표소를 찾을 수 있었다. 또 '투표소'나 '우리동네투표소'만 입력해도 각 투표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개표결과도 한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개표결과', '선거결과', '당선자'를 입력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결과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개표방송', '개표현황'을 입력하면 KBS가 제공하는 인터넷개표방송 페이지로 연결됐다.

Even President?



- The newly elected president of Korea, Mr. Roh Moo-Hyun utilized Korean Internet address for campaigning. His Korean Internet address resulted in 4 times more traffic than his compet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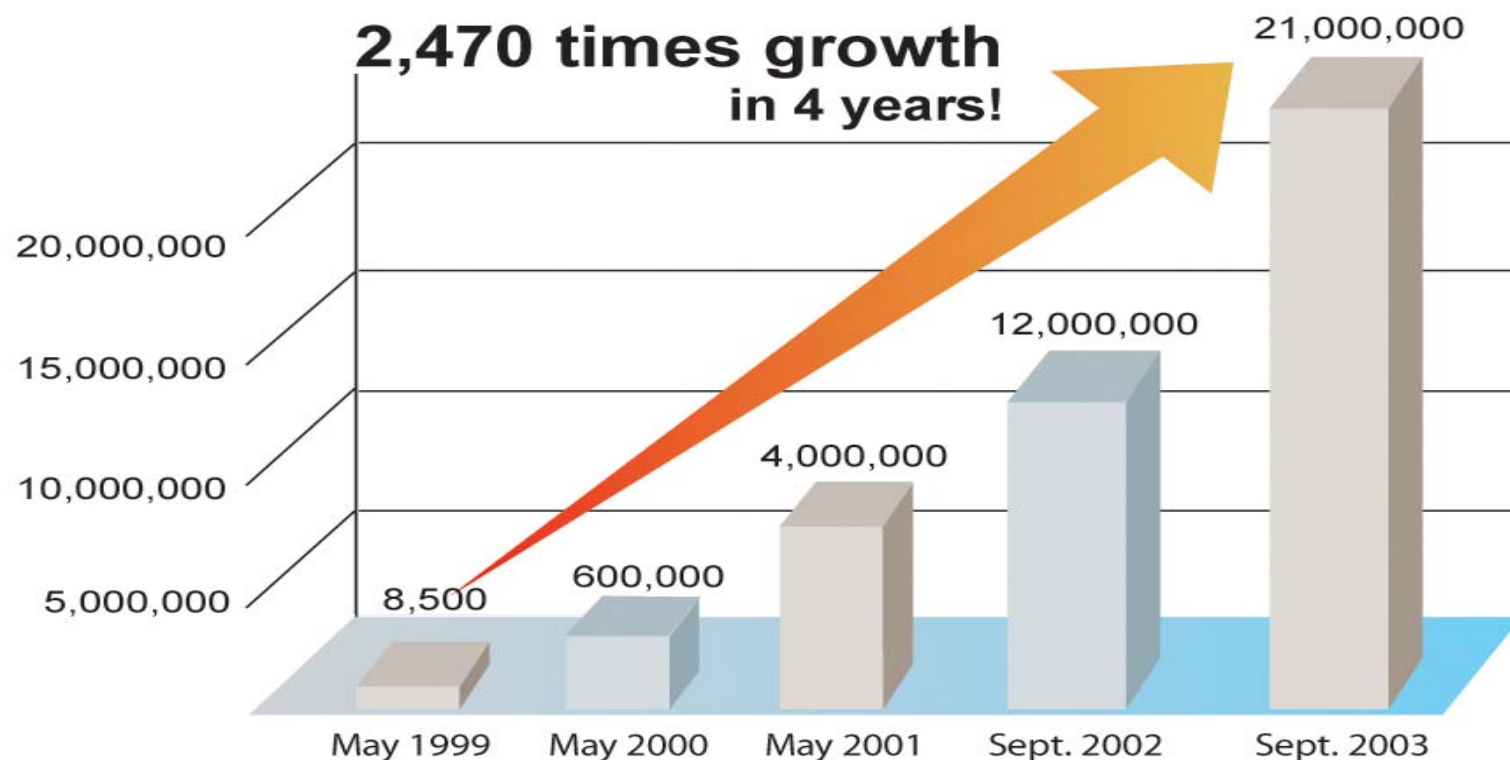


- Many corporations in Korea are advertising their homepage with Korean Internet Address and creating more traffics.



- All major and National television stations are advertising their homepage with Korean Internet Address.

Growth of Korean Internet Address Use



IV

Multilingual
Internet Name

Responses from World

Response from Nepal





Response from Malaysia





NLI(Native Language Internet) Consortium has been formed

- Consortium Preparation Workshop
 - held in Lexington Hotel in Seoul on Sept. 27, 2005
 - 20 participants from 15 countries
 - 6 speakers (Greek, Bangladeshi, Ghana, France, Turkey, Korea)
 - adopt a resolution

- The first General Assembly Meeting
 - held in ATI(Agency Tunisia Internet) in Tunis on Nov. 14, 2005
 - 11 participants from 8 countries
 - finalized bylaws
 - elected 6 board members
 - agree to organize ‘Native Language Identifier Workshop’

- The first BOD meeting
 - held in ATI (Agency Tunisia Internet) in Tunis on Nov. 15, 2005
 - elected Chairman (France)
 - appointed CEO (Korea) and CFO (Turkey)
 - appointed chairman for the event committee (Ghana)

- Incorporation: still in progress

NOT FOR PROFIT

INDEPENDENT

INTERNATIONAL

OPEN PARTICIPATION

- Business
- Academia
- Civil Society
- Individuals

- **Board of Directors**

- Louis Pouzin (France) : Chairman
- Nii Quaynor (UN ICT Taskforce member)
- Atique Rabbani (Bangladeshi)
- Bechir Raddaoui (Tunisia)
- Koray Kocagöncü (Turkey)
- BH Lee (Korea)

- **Secretariat**

- Kangsik Cheon (Korea) : Executive Director and CEO

- **Offices**

- Paris
- Seoul
- Seattle

Thank You !